

# 기계산업 역량강화 상시지원 체계 가동

### 도, 중소기업엔지니어링 설계지원 사업 공모...최대 1500만원 지원 기술지원단 상시 운영...종사자 실무능력 향상·설계 기술 등 지원

전북도가 도내 기계산업 엔지니어링 설계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엔지니어링 설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 가공 조립에서 표준화된 제품설계 중심의 제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기계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도는 엔지니어링SW 활용한 최적화된 설계지원으로 신제품 출시를 촉진하고,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주요내용은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최적화 설계·해석 지원, ▲3D 스캐너·프린터 활용 실물모형 제작 및 장비·SW 활용지원, ▲엔지니어링 설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용 교육, ▲전문 설계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 공간 운영 등이다.

엔지니어링 설계지원 대상은 은·오 프라이너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소재한 기업으로 (재)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

(www.tbp.or.kr)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평가 및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수행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계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기술지원단을 상시 운영해 종사자 실무능력 향상 및 최적화 설계 기술을 지원하고, 혁신기관·기업체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 확산과 제조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익산)를 구축한 후,

2021년까지 총 230여개 기업을 지원했다.

자체 인프라를 활용한 엔지니어링 설계기술지원 170건, 전문설계기업과 연계한 설계기술지원 60건, 설계기술 인력 270명을 교육을 했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 성능개선 등 도내 중소기업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도내 제조기업의 엔지니어링 설계기술 기반 제품개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제9기 전북도 과학기술위원회' 새롭게 출범

### 제1차 과학기술위원회 개최...새 정부 출범 대응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촉진

전북도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정책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전북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제9기 전북도 과학기술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

도는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2년 제1차 전북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 새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그간 위원회 성과점검 및 제9기 운영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전북도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새롭게 출범한 제9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전북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인 도지사를 비롯해 당연직 위원 9명 및 21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장과 도내 주요 대학 등이 참여, 각 분야의 과학 기술 전문가를 위촉했다.

위원회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주요기능은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도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성장동력발달 등 지역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위원회 산하의 연구회를 구성·운영하며, 매년 2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등 활동으로 전북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에 대응해 연구회 구성을 추가 확대하는 등 탄력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유망한 신기술·신산업 성장동력 발굴을 집중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전북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회의 범위를 확대(13개 구성) 조정하는 등 발빠른 준비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전북도 경쟁력 제고와 도와의 발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도내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과학기술 부문 역할을 강화하고, 도 신산업지도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등 산업혁

신 생태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대형 국책사업 발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추어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북도 산업혁신 생태계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미래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대응할 계획"이라며 "전북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발굴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산업혁신 생태계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성장 가능한 전북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산업 육성이 중요한 관건"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신산업 분야 선점을 위한 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과학기술위원회가 전북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이자 주춧돌"이 돼주길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도, 지자체 합동평가서 '우수성과'

### 도-시·군 간의 적극 소통·협업... 행정 역량 집중 '결실'

전북도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등 28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 업무평가기반법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정과제를 분야별 지표로 나눠, 중앙부처와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평가단(85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제도다.

도는 정방평가 국정과제 5대 분야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일반행정 분야)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지역개발·환경산림 분야)에서 최고점(100%)을 기록했으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지역경제·지역혁신 분야) 또한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93.8%)을 거뒀다.

특히, 올해는 우수사례 작성부터 선정시까지 많은 노력과 행정력이 필요한 정성평가에서 4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상위권에 속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유호상기자

지역특화 주거복지 분야의 '포용적 주거복지로 아름다운 전북에서 아름다운 삶을',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특성화 분야 '도서관의 새로운 변신 트윈세계 야호놀이터, "우주로 1216",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체계 확립 분야 'scb by scb 단계적 관리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up'은,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분야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도민과 함께 하는 예산감사' 등이 다.

도는 오는 6월경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함께 노력한 시·군에 이를 배분해 내년도 평가 추진동력 확보, 동기부여 강화로 시·군의 능동적인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성과 향상을 위해 전략적인 목표설정과 주기적인 실적관리, 전문가와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완성도 높은 우수사례를 작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호상기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전북도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4월 내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021년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만 7세 이상~만 8세 미만) 아동 14,500명을 포함해 '22년 총 85,650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가정 내 소득과 재산과

관련 없이 해당 연령 내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 누리집 www.bkjo.go.kr,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4월에 '22. 1월 ~ 3월의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는다

/유호상 기자

# 신원식 정무부지사, 남원시 현장행정 나서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공모사업 신청예정지 방문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21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예정지를 방문해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남원시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 공모사업에 준비중인 사업으로, 시범노선 사업구간인 남원시 주천면 고가삼거리에서 고가까지 지리산 환경의 인위적인 개발없이 기존 도로를 활용해 1km 선로를 건설하는 자연환경 친화사업이다.

이번 공모 사업대상구간은 매년 동절기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5개월

간 많은 적설로 인해 차량통행이 금지돼 산악지역의 주민들의 이동권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전담조직인 친환경전기열차IT팀을 구성해 공모사업 선정에 대응하고 있다.

철기연은 2020년 3월부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3일 시범노선 1km 건설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공모를 시행했다.

철기연은 지자체별로 공모사업 계획서를 오는 25일까지 접수받아, 1단계



(사견적격성)과 2단계(사업계획 발표 및 서면) 평가를 통해 금년 7월경 우선협상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시범노선 1km 건설 및 운영에 대해 국가기원개발 연구비로 80억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지리산 권역 교통이동권 확보와 지리산 경관을 활용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도,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 공모 선정

전북도가 행안부에서 주관한 '2022년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 공모'에서 2차 심사 경쟁 끝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새로운 도로명주소제의 정착과 더불어, 복잡한건물군,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를 촘촘하게 부여해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위치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지난 3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북도를 포함, 전국 7개 지자체가

선정된 이번 공모에는 4개 분야 총 21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도는 주소체계 고도화 부문에서 사업경쟁력을 인정받아 20일 발표한 최종 선정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의 주요 거점 교통시설인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될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사업비 100백만 원을 투입하게 되며, 이 중 70백만 원을 특교세로 지원받게 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버스터미널 내 상세주소, 사물주소 부여, ▲주소정보기본도 등록 등이다.

/유호상 기자

# 전주 문화예술인 119명 "조지훈 지지"

전주의 문화예술인 119명이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21일 전주에서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119명은 전주의 문화예술 지평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느 후보보다 전주를 잘 아는 만큼 전주의 문화예술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시·후보는 21일 정책 발표를 통해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감염병 창궐의 예고편일 수 있다"며 "대한민국 공공의료 기관 병상비율은 전체대비 8.9%로 부족하므로 전주시립 공공병원을 건립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립 공공병원을 통해 신종 감염병 예방에 대한 사전준비태세의 구축과 감염병 발생 시 지역내 안정적인 대응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윤근 후보는 "전주시립 공공병원 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공공의료로서 비스를 제공해 전주시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의료 복지서비스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지역 청년 1004명, 우범기 후보 지지선언

전주지역 청년 1004 명이 21일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했다. 정 훈(JB정비기계 대표)씨를 비롯한 청년 1004명은 이날 "전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범기 후보 지지선언에 나섰다"며 "눈을 부릅뜨고 전주를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주경제를 살릴 책임자는, 풍부한 행정경력과 웅장한 비전을 제시하

는 우범기 후보뿐이다"며 "전주를 살릴 마지막 희망으로 우범기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전주는, 작은 아련에 눈멀어 자신만의 안위를 행하는 정치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침체했으며 그 결과, 청년들은 전주에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다"고 꼬집고 "전주를 살릴 해결책인 우범기 후보를 놓치고 또 후회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립 공공병원 건립해야"

###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가 코로나9 감염병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며 전주시립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후보는 21일 정책 발표를 통해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감염병 창궐의 예고편일 수 있다"며 "대한민국 공공의료 기관 병상비율은 전체대비 8.9%로 부족하므로 전주시립 공공병원을 건립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립 공공병원을 통해 신종 감염병 예방에 대한 사전준비태세의 구축과 감염병 발생 시 지역내 안정적인 대응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윤근 후보는 "전주시립 공공병원 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공공의료로서 비스를 제공해 전주시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의료 복지서비스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청년가게로 청년시장 키울 것"

###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21일 청년보듬정책 7단으로 '청년가게'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창업 지원을 약속했다.

임 출마예정자에 따르면, '청년가게' 프로젝트는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임대료를 크게 줄여줘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전주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 상가를 임차해 청년가게로 조성할 계획이며, 보증금은 이에

없다. 월세는 가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2년간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며 인테리어, 간판 설치, 홍보 마케팅 비용 등은 1대1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아이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본 후 전문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해 경영 노하우를 미리 익힐 수 있다는 게 임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임 출마예정자는 "청년가게는 첫 해에 30곳 정도를 조성해 지원하고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군산시 공고 제2022-901호

# 군산 도시관리계획(구암동 공동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입안 열람공고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군산 도시관리계획(구암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입안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8조, 「토지이용규제기법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사항: 구암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2. 열람기간: 공고 게시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Tel. 063-451-3501, Fax. 063-452-8171)
4. 입안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변경후)	
신설	64	구암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구암동 306-10번지 일원	-	25,897	25,897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설용생략(열람장소 비치)

5. 관계서류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4월 22일 군산시장